

4G보다 1000배 빠른 5G ‘눈앞에’

한국 이동통신 30년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미래창조부 1조6000억원 투자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로



“수험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백지·복수 원서를 들고 극심한 눈치싸움을 벌여 마감시간 직전 대학 접수창구는 시장처럼 혼잡했다. 가족들까지 동원돼 미달학과를 찾아 카페로 연락, 순간적으로 주변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모습도 보였다.”

30년 전인 1984년 대학입시 풍경을 전하는 기사의 한 구절이다. 차량용 전화 ‘카폰’의 등장이 당시 대학입시 양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카폰으로 시작한 한국의 이동통신은 1세대(1G) 앤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로 대중화를 전망이다. 고용량 영화도 순간간에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곧



4G와 5G 비교해 보니

	4G	5G
속도	150Mbps	1Gbps
영화 한편 내려 받기	43초	1초도 안걸려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로 대중화를 전망이다. 고용량 영화도 순간간에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곧

이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리미 리프킨이 말한 ‘소유의 종말·접속의 시대’가 한층 더 현실 속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통신 속도가 기가비트급으로 빨라지면 지금까지는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았던 기기들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0년의 비약적 도약의 경험을 살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의 30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나 다른 창작형 스마트 기기에 전달해준다. 자동차는 때맞춰 정비해야 할 항목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지에 정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운전한다. 신호등은 교통량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된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гр레스(MWC)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이제 사물인터넷을 넘어 만들

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스마트 2.0 시대의 도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모습도 바뀔 전망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기보다는 5G 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과 비데이터, 플랫폼 등 사업의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0년의 비약적 도약의 경험을 살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의 30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CCIB)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2014’ 행사 참가자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체험해 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S5 조기 출시 ‘없던 일로’

SKT와 불협화음…예정대로 내달 11일 내놓을 듯



갑작스런 삼성전자의 태도 변화는 글로벌 출시에 앞서 제품을 국내에 내놓는데 대한 부담 및 실적 우려 때문에 조기출시를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1일 출시되는 갤럭시S5는 심박센서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법상 심박센서가 장착된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갤럭시S5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운동·레저용 심박센서를 장착한 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에 고쳤으나 관련 입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심박센서 기능을 막아놓고 추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KT와 LG유플러스(U+)는 갤럭시S5 출시된다면 파손·분실 제품이나 2년 이상 사용한 제품의 기기변경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갤럭시S5의 출고가는 86만8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지역 가격인 80만원과 견줘 다소 높은 것이다. 국가별 가격 격차는 세금의 차이와 배터리 2개, 외장형 DMB 안테나 지급 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종군 삼성전자 IM(IT·모바일) 담당 사장이 26일 오전 사장단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기 출시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출시 시점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연합뉴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도심 수준 LTE 이용 가능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도심 수준의 통합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KT는 25일 마라도에 설치된 기존 구형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최대 800Mbps까지 전송 가능한 통합형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라도에서도 최대 200Mbps 이상의 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KT는 도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교체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장비를 교체해 LTE 품질을 개선했다.

KT 관계자는 “7월1일 광대역 LTE-A 전국망 서비스가 시작되면 제주도를 포함한 마라도와 인근 섬지역에서 곧바로 더욱 빠른 LTE 속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T 해커,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홈피 8만6천건 접속

KT 해커,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홈피 8만6천건 접속

KT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빼간 해커는 이번 해킹프로그램 외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KT 관련 홈페이지를 9만건 가까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 KT 홈페이지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커가 개발한 또 다른 해킹프로그램으로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8만5999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해커가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은 2개이며, 개인정보 유출에는 파로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킹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조사단은 해커의 추가적인 해킹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KT 홈페이지 본인 확인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9개의 홈페이지 취약점을 발견했다. 또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KT에 보안조치를 요청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KT는 이 같은 해킹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수만~수십만번 접속하는 것을 모로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해커는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최대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할 때 본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KT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할 때 본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인지 검증하는 단계 없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포털, 쇼핑몰, 웹하드 등 업체에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할 때 본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할 때 본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인지 검증하는 단계 없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포털, 쇼핑몰, 웹하드 등 업체에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특정 IP에서는 하루 평균 34만1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으나 KT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단은 KT에 넘은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 538기가바이트(GB) 분량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1266만번에 걸쳐 홈페이지에 접속했